

# 우리 아이 등원 전, 로타 바이러스 예방하기!



##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주로 발병되는 로타 바이러스.

왜 발생하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물리쳐볼까요?



##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병합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비롯한  
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이하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과 구토가 시작되고 똥은 설사가 시작됩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39°C를 넘는 발열이 있으며,  
 구토와 발열은 2일째에 호전되며  
 설사는 5-7일간 지속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수년간  
늦은 겨울과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전염성이 크며,  
환자의 대변이나 토사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예, 오염된 물건, 음식물 등)  
또한 이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병동, 산후조리원, 놀이방 등에서  
집단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과 접촉한 성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음식물 조리 전, 식사 전, 기저귀를 간 후,  
증상이 있는 환자 간호할 때 등),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구토한 경우에는  
**알코올을 이용하여 구토한 장소를 닦아**  
**소독**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3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건강한 새 봄 맞이하세요!**

